

WEBVTT

00:00:11.385 --> 00:00:13.050

안녕하세요?
장동준 샘입니다.

00:00:13.150 --> 00:00:15.858

장동준의 왕초보 만화
생강 국어 문법,

00:00:15.958 --> 00:00:19.935

이번 시간 국어의
규범으로 들어왔습니다.

00:00:20.035 --> 00:00:24.037

국어의 구조, 정말 핵심적인
부분이었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.

00:00:24.137 --> 00:00:28.242

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
부분이기도 했는데 다 끝났어요.

00:00:28.342 --> 00:00:30.917

그리고 이제 국어의
규범으로 들어왔는데

00:00:31.017 --> 00:00:34.227

이 부분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
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.

00:00:34.327 --> 00:00:38.053

왜냐하면 이게 규정이자 보니까
이거를 다 외워야 되느냐,

00:00:38.153 --> 00:00:39.782

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던데.

00:00:39.882 --> 00:00:43.285

내신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
당연히 외워야 되겠죠.

00:00:43.385 --> 00:00:46.160

하지만 수능에서는 이 규정을
외울 필요는 없어요.

00:00:46.260 --> 00:00:49.377

그냥 규정을 이해하는 정도로만
알고 있어도 됩니다.

00:00:49.477 --> 00:00:53.770

왜냐하면 표준어 규정이라는 것이
보기에 체시가 되기 때문이죠.

00:00:53.870 --> 00:00:57.198

그런데 요즘 최근의 흐름은
조금 달라졌어요.

00:00:57.298 --> 00:01:00.447

왜냐하면 표준어
규정이란지 한글 맞춤법.

00:01:00.547 --> 00:01:05.280
그다음에 표준 발음법, 이런
것들의 지식을 측정하는 선택지도

00:01:05.380 --> 00:01:08.320
아주 살짝 살짝
제시되고 있기 때문에.

00:01:08.420 --> 00:01:12.267
그래서 우리가 그냥
편안하게 공부할 거면

00:01:12.367 --> 00:01:17.919
다 완벽하게 알아두는 것이
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

00:01:18.019 --> 00:01:24.770
그러면 일단 국어의 규범이 어떤 것들이
있는지 잠깐 점검을 해볼게요.

00:01:24.870 --> 00:01:29.928
오늘 배울 게 표준어 규정이에요.

00:01:30.028 --> 00:01:33.166
문제는 다 한 다음에
한 번에 풀어볼 건데.

00:01:33.266 --> 00:01:36.507
표준어 규정을 일단 배우고

00:01:36.607 --> 00:01:39.674
그다음에 거기 137쪽에
나와 있지만

00:01:39.774 --> 00:01:47.483
다음 시간에 한글
맞춤법을 배울 거예요.

00:01:47.583 --> 00:01:56.652
그다음에 표준 발음법을 배우고.

00:01:56.752 --> 00:02:07.812
그다음에 우리 친구들이
어려워하는 외래어 표기법과

00:02:07.912 --> 00:02:13.657
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까지 해서

00:02:13.757 --> 00:02:19.189
크게 보면 우리가 배우는
부분이 네 파트다.

00:02:19.289 --> 00:02:22.997
이렇게 보면 돼요.

00:02:23.097 --> 00:02:27.630
그렇다면 오늘은 표준어
규정에 대한 건데

00:02:27.730 --> 00:02:31.593

왜 한글 맞춤법을 먼저 안 하고
표준어 규정을 먼저 하느냐.

00:02:31.693 --> 00:02:33.828
다 이유가 있어요.

00:02:33.928 --> 00:02:37.695
왜냐하면 한글 맞춤법,
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

00:02:37.795 --> 00:02:40.911
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
대상으로 하는 거예요.

00:02:41.011 --> 00:02:46.197
그러니까 일단 표준어가 뭔지를 알아야
한글 맞춤법을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.

00:02:46.297 --> 00:02:49.836
한글 맞춤법을 배울 때
표준어가 나오기 때문에

00:02:49.936 --> 00:02:53.219
일단 표준어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한글
맞춤법이 잘 이해가 될 거예요.

00:02:53.319 --> 00:02:55.921
그래서 제가 제시한
순서대로 공부하는 것이

00:02:56.021 --> 00:03:00.699
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하다고
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

00:03:00.799 --> 00:03:06.606
그러면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,

00:03:06.706 --> 00:03:09.343
제1항부터 언급을 했는데.

00:03:09.443 --> 00:03:16.642
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137쪽에 수능
팁이라고 써놓은 부분이 있어요.

00:03:16.742 --> 00:03:18.944
이거 잠깐 저와 함께
읽고 시작할게요.

00:03:19.044 --> 00:03:21.015
왜냐하면 중요합니다.

00:03:21.115 --> 00:03:24.211
표준 발음법은 음운 지식과
연동되어 있는 부분이므로

00:03:24.311 --> 00:03:27.044
138쪽에 마지막 컷이에요.

00:03:27.144 --> 00:03:30.716
표준 발음법은 음운 지식과
연동되어 있는 부분이므로

00:03:30.816 --> 00:03:35.258
음운에 대한 지식을 갖춘 상황에서 표준
발음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00:03:35.358 --> 00:03:39.882
한글 맞춤법은 구체적인 세부 규칙을
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유형이

00:03:39.982 --> 00:03:44.634
출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
한글 맞춤법 총칙을 바탕으로

00:03:44.734 --> 00:03:47.540
세부 조항들을 이해하고
있어야 합니다.

00:03:47.640 --> 00:03:53.237
그래서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
표기법은 출제 빈도가 낮으나

00:03:53.337 --> 00:03:57.634
교육 과정에 포함돼 있는 만큼
미리 공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.

00:03:57.734 --> 00:04:00.800
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
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

00:04:00.900 --> 00:04:03.540
요약해서 정리한 부분이
바로 이 부분입니다.

00:04:03.640 --> 00:04:07.447
그래서 차근차근 쪽
따라 오시면 되겠고요.

00:04:07.547 --> 00:04:13.104
그러면 일단 표준어 규정부터
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4:13.204 --> 00:04:17.076
여러분은 교재 어디를 보면 되냐면,

00:04:17.176 --> 00:04:26.178
140쪽에 보면 여섯 번째 컷에
1항과 2항에 총칙이 있어요.

00:04:26.278 --> 00:04:29.906
표준어 규정에 관련된
총칙이 있어요.

00:04:30.006 --> 00:04:33.848
제1항, 우리 친구들이 많이
들어본 내용일 겁니다.

00:04:33.948 --> 00:04:38.287
제1항에 따르면 표준어는
무엇을 원칙으로 한다?

00:04:38.387 --> 00:04:44.900

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다.

00:04:45.000 --> 00:04:48.086

그래서 표준어 사정의 세 가지 조건이 나와 있어요.

00:04:48.186 --> 00:04:51.646

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00:04:51.746 --> 00:04:55.868

그래서 첫째,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, 이라는 계층적 조건.

00:04:55.968 --> 00:04:58.693

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.

00:04:58.793 --> 00:05:05.278

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.

00:05:05.378 --> 00:05:08.104

계층적 조건부터 보면,

00:05:08.204 --> 00:05:12.946

그러면 표준어를 쓰지 않으면 교양이 없는 사람들이냐.

00:05:13.046 --> 00:05:14.730

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.

00:05:14.830 --> 00:05:17.475

그러면 나는 지역에서 사투리를 쓰고 있는데

00:05:17.575 --> 00:05:20.151

표준어를 안 쓰면 나는 교양 없는 사람이야? 아 기분 나빠.

00:05:20.251 --> 00:05:21.590

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.

00:05:21.690 --> 00:05:24.072

여기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, 이라고 하는 것은

00:05:24.172 --> 00:05:28.838

표준어가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교양 없는 말은 해당되지 않는다.

00:05:28.938 --> 00:05:30.024

그런 이야기에요.

00:05:30.124 --> 00:05:33.103

그러니까 비속어라든지 그런 것들은 표준어가 될 수 없다는 거죠.

00:05:33.203 --> 00:05:35.965

왜? 비속어는 교양이 없는 말이니깐요.

00:05:36.065 --> 00:05:39.533

그런 의미이지 표준어를
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

00:05:39.633 --> 00:05:42.821

교양이 없다? 이렇게 해석하면
절대 안 되는 거예요.

00:05:42.921 --> 00:05:45.421

오해하지 마시고.

00:05:45.521 --> 00:05:48.598

그다음에 둘째,
현대라는 시대적 조건.

00:05:48.698 --> 00:05:53.606

고대 아니죠, 중세
아니죠, 현대입니다.

00:05:53.706 --> 00:05:57.839

그래서 현대를 기준으로
이 시점을 기준으로

00:05:57.939 --> 00:06:01.109

이 시대적 조건을 기준으로
표준어를 세팅한 겁니다.

00:06:01.209 --> 00:06:05.529

그다음에 지역적 조건, 서울인데.

00:06:05.629 --> 00:06:08.519

이것도 논란이 좀 많죠.

00:06:08.619 --> 00:06:10.456

왜 서울이냐?

00:06:10.556 --> 00:06:12.352

아니, 부산은 왜 안 되냐.

00:06:12.452 --> 00:06:14.760

또는 광주는 왜 안 돼요?
인천은 왜 안 돼요?

00:06:14.860 --> 00:06:17.715

왜 지역적 조건이 서울이냐면

00:06:17.815 --> 00:06:23.422

이 표준어 규정이 만들어졌을 당시만
하더라도 서울이 제1 도시예요.

00:06:23.522 --> 00:06:30.155

정치, 경제, 사회,
문화의 중심지였어요.

00:06:30.255 --> 00:06:33.481

그래서 그 중심지에 있는 말로
기준을 삼아놓은 거예요.

00:06:33.581 --> 00:06:36.075

사실 서울 지역의 말도
사투리예요, 서울 사투리.

00:06:36.175 --> 00:06:37.801
다 방언입니다.

00:06:37.901 --> 00:06:45.269
그런데 수많은 방언 중에 하나를
표준어로 지정을 한 거죠.

00:06:45.369 --> 00:06:47.624
처음부터 표준어가 있던 게 아니고

00:06:47.724 --> 00:06:51.083
각 지역의 말들이 따로
따로 분포되어 있었는데

00:06:51.183 --> 00:06:54.217
그중에서 정치, 경제, 사회,
문화의 중심지 서울의 말을

00:06:54.317 --> 00:06:59.663
하나 잡아놓은 거예요,
채택한 겁니다.

00:06:59.763 --> 00:07:07.949
그래서 제1항에서 보이는 표준어 사정의
세 가지 조건을 기억해주시고요.

00:07:08.049 --> 00:07:10.999
그다음에 2항은 외래어는
따로 사정한다.

00:07:11.099 --> 00:07:13.978
이거는 외래어 표기법에서
이야기를 할 거고.

00:07:14.078 --> 00:07:19.504
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표준어
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

00:07:19.604 --> 00:07:20.652
세부 규정.

00:07:20.752 --> 00:07:23.594
그런데 웬만한 중요한
것들은 다 다루겠지만

00:07:23.694 --> 00:07:29.284
핵심 포인트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

00:07:29.384 --> 00:07:32.404
제5항부터 갈게요.

00:07:32.504 --> 00:07:37.062
여기서도 보면 교재에 다
실어놓은 게 아니에요.

00:07:37.162 --> 00:07:41.035
딱 봐도 너무나 뻔하고
당연한 거는 뺐습니다.

00:07:41.135 --> 00:07:42.429

그냥 봐도 이해되는 거,

00:07:42.529 --> 00:07:48.457

그런 거 말고 아주 약간이라도
의욕이 생길 수 있는

00:07:48.557 --> 00:07:51.178

그런 것들을 제가 준비했습니다.

00:07:51.278 --> 00:07:53.812

문제 풀 때 조금이라도
결리적 거리는 것들.

00:07:53.912 --> 00:07:58.156

제5항을 보면 140쪽에
나와 있어요.

00:07:58.256 --> 00:08:05.096

어원에서 떨어진 형태로
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

00:08:05.196 --> 00:08:07.850

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.

00:08:07.950 --> 00:08:10.941

제가 이야기하고 있죠?

00:08:11.041 --> 00:08:15.140

형태상의 근거보다는 사용
빈도를 중시하는 규정이다.

00:08:15.240 --> 00:08:17.632

이해가 아직 안
되더라도 괜찮습니다.

00:08:17.732 --> 00:08:20.373

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 거예요.

00:08:20.473 --> 00:08:34.453

예를 들어서 141쪽에 나와 있지만
강남콩과 강낭콩이 있습니다.

00:08:34.553 --> 00:08:41.233

강남콩이 어원을 보여주는
형태이기는 해요.

00:08:41.333 --> 00:08:48.216

그런데 지금 실제로 널리
쓰이는 거는 강낭콩이에요.

00:08:48.316 --> 00:08:52.918

그래서 지금 분명 어원을
보여주는 것은 강남콩이지만

00:08:53.018 --> 00:08:56.576

어원에서 떨어진 형태로
강낭콩이 쓰이고 있고

00:08:56.676 --> 00:08:58.911

그다음에 널리 쓰이고
있단 말이에요.

00:08:59.011 --> 00:09:00.786

이거보다는 이게 널리
쓰이고 있기 때문에

00:09:00.886 --> 00:09:04.271

이것을 지금 여기서는 표준어로
삼고 있다는 이야기에요.

00:09:09.421 --> 00:09:13.164

그다음에 삭월세, 사글세의
경우에도 그렇습니다.

00:09:13.264 --> 00:09:16.919

우리 친구들은 삭월세, 사글세 이런
표현들이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.

00:09:17.019 --> 00:09:18.586

요즘에 잘 쓰는 표현이 아니니까.

00:09:18.686 --> 00:09:21.690

그런데 옛날에는 많이
썼던 표현인데.

00:09:21.790 --> 00:09:25.036

예전에 삭월세라는 표현이
그렇게 많이 쓰였어요.

00:09:25.136 --> 00:09:28.839

드라마에서도 나왔고 전봇대에도
많이 붙어 있었고.

00:09:28.939 --> 00:09:32.991

삭월세, 사글세 이런
표현이 있는데.

00:09:33.091 --> 00:09:37.837

이것도 보면 삭 자가
초하루 삭 자라고 해서.

00:09:37.937 --> 00:09:41.599

이것도 어원을 제대로
보여주는 형태이기는 한데

00:09:41.699 --> 00:09:45.078

실제로 널리 쓰이는 거는
사글세이기 때문에.

00:09:45.178 --> 00:09:50.260

여기 보면 형태상의 근거보다는
사용 빈도라고 되어있잖아요.

00:09:50.360 --> 00:09:54.196

이게 중요한 거예요.

00:09:56.516 --> 00:09:59.235

그러면 여기서 중요한
거는 뭐겠습니까?

00:09:59.335 --> 00:10:04.462

표준어 규정을 할 때 그냥

형태라든지 문법적 근거,

00:10:04.562 --> 00:10:07.368

이런 거보다는 가장
중요한 기준이 뭐예요?

00:10:07.468 --> 00:10:09.136

표준어 규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

00:10:09.236 --> 00:10:12.794

사람들이 정말 그거를 제대로
쓰고 있는냐가 중요한 거죠.

00:10:12.894 --> 00:10:21.725

한마디로 정리하면 언어를 사용하는
언증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.

00:10:21.825 --> 00:10:26.006

그래서 만약에 표준어가
정해져 있다고 할지라도

00:10:26.106 --> 00:10:29.611

언증들이 그 정해진 표준어를 안
쓰고 다른 말을 많이 쓴다.

00:10:29.711 --> 00:10:33.176

그러면 그 말이 표준어가 됩니다.

00:10:33.276 --> 00:10:37.678

그래서 모든 규정은
규정이 먼저 있고

00:10:37.778 --> 00:10:39.833

사람들이 그거를 따라
하는 게 아니고

00:10:39.933 --> 00:10:42.272

사람들이 많이 하다보면 그게
표준어가 되는 거예요.

00:10:42.372 --> 00:10:45.037

흐름이 그래요.

00:10:45.137 --> 00:10:46.636

맞춤법도 마찬가지예요.

00:10:46.736 --> 00:10:50.326

맞춤법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
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.

00:10:50.426 --> 00:10:54.409

표준 발음도 마찬가지이고
다 그렇습니다.

00:10:54.509 --> 00:10:56.903

나중에 표준 발음법에서도
언급하겠지만

00:10:57.003 --> 00:11:03.268

예를 들어서 이것도 최근에,

00:11:03.368 --> 00:11:05.638
원래 발음이 김밥이죠.

00:11:05.738 --> 00:11:08.048
그런데 사람들은 김밥이라고 안
해요, 김빡이라고 하죠.

00:11:08.148 --> 00:11:10.885
그래서 김빡 인정했습니다,
표준 발음으로.

00:11:10.985 --> 00:11:13.188
그다음에 이런 거 있죠?

00:11:13.288 --> 00:11:17.487
짜장면, 이것도 예전에
자장면이 맞는 표현이었어요.

00:11:17.587 --> 00:11:20.370
그런데 사람들이
자장면이라고 안 하거든요.

00:11:20.470 --> 00:11:23.175
짜장면이라고 하거든요, 그래서
짜장면도 인정했어요.

00:11:23.275 --> 00:11:24.669
이런 식입니다.

00:11:24.769 --> 00:11:30.417
그래서 언중들이 많이 사용하는
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, 유연하다.

00:11:30.517 --> 00:11:33.535
이런 규정들은 고정된 게
아니고 상황에 따라서

00:11:33.635 --> 00:11:39.896
시대가 변함에 따라 달라질 수
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아요.

00:11:42.133 --> 00:11:46.411
그래서 지금 5항 표준어
규정을 확인해 봤고요.

00:11:46.511 --> 00:11:48.334
다음 항목을 보겠습니다.

00:11:48.434 --> 00:11:55.859
여기서는 사글세를 표준어로 삼았다는
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.

00:11:55.959 --> 00:11:59.289
다음 거를 볼까요?

00:12:01.597 --> 00:12:04.335
제8항 점검해보겠습니다.

00:12:04.435 --> 00:12:07.131
제8항의 경우는 음운적인
근거보다 사용 빈도를,

00:12:07.231 --> 00:12:09.631

이것도 역시 사용
빈도를 중시한 건데.

00:12:09.731 --> 00:12:14.547

제8항을 보면 양성 모음이 음성
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

00:12:14.647 --> 00:12:18.035

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.

00:12:18.135 --> 00:12:24.378

이거는 모르는 사람 정말
많아요, 이거 사례 이야기하면.

00:12:24.478 --> 00:12:27.967

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퀴즈를
내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12:28.067 --> 00:12:35.117

토끼가 짱충짱충 뛰다.

00:12:35.217 --> 00:12:38.340

아니다, 토끼는 짱충짱충 뛰다.

00:12:38.440 --> 00:12:41.505

어떤 게 맞습니까?

00:12:43.791 --> 00:12:48.593

참고로 이거 제가 대학교
강의 나갔을 때

00:12:48.693 --> 00:12:53.074

대학생들에게 물어봤거든요,
옛날에 2년 전인가.

00:12:53.174 --> 00:12:56.567

절반 맞고 절반은 틀렸어요,
진짜 모르더라고요.

00:12:56.667 --> 00:12:59.523

그런데 몰랐다고 해서
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.

00:12:59.623 --> 00:13:01.655

규정이 이러하니까.

00:13:01.755 --> 00:13:06.353

그래서 보면 이 8항의 규정
때문에 이거는 틀린 거고요.

00:13:06.453 --> 00:13:08.671

이게 맞아요.

00:13:08.771 --> 00:13:11.910

이게 표준어예요, 짱충짱충.

00:13:12.010 --> 00:13:13.648

대부분 짱충짱충이라고
많이 알고 있더라고요.

00:13:13.748 --> 00:13:16.291

왜냐하면 이게
ㅏ, ㅑ, ㅓ, ㅕ

00:13:16.391 --> 00:13:18.891

그러니까 양성 모습, 양성
모습, 양성 모습, 양성 모습

00:13:18.991 --> 00:13:23.189

모습 조화가 잘 되어 있으니까
뭔가 밝은 모습끼리 모여진

00:13:23.289 --> 00:13:25.759

깡충깡충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

00:13:25.859 --> 00:13:27.448

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.

00:13:27.548 --> 00:13:30.749

양성 모습이 음성 모습으로
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,

00:13:30.849 --> 00:13:34.176

이것도 보면 깡충깡충이
굳어졌단 말이에요.

00:13:34.276 --> 00:13:38.440

모습 조화가 파괴되고 이런 식으로
굳어져서 널리 쓰였기 때문에

00:13:38.540 --> 00:13:41.214

깡충깡충이 맞다.

00:13:41.314 --> 00:13:44.532

그래서 이것도 모르는
친구들이 참 많았다.

00:13:44.632 --> 00:13:49.109

하지만 그렇다고 나 몰랐어,
깡충깡충이 맞는 줄 알았어, 이런.

00:13:49.209 --> 00:13:54.658

이렇게 자책하지 말고 지금
알면 돼요, 이 순간에.

00:13:54.758 --> 00:13:59.563

그래서 깡충깡충이 모습
조화를 지키는 형태이지만

00:13:59.663 --> 00:14:02.273

모습 조화에 어긋나는
깡충깡충이 널리 쓰이니까

00:14:02.373 --> 00:14:05.521

이것을 표준어로 삼았다는 이야기죠.

00:14:05.621 --> 00:14:10.950

그다음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14:13.187 --> 00:14:20.385

제 18항, 제 19항이 복수 표준어에
관련된 규정이라고 나와 있죠.

00:14:20.485 --> 00:14:26.958
141쪽에 제19항이 나와
있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.

00:14:27.058 --> 00:14:29.656
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
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

00:14:29.756 --> 00:14:33.466
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
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.

00:14:33.566 --> 00:14:39.963
그래서 18항에 제시된
예를 보겠습니다.

00:14:40.063 --> 00:14:43.072
18, 19항에 제시된
복수 표준어의 예를 보면

00:14:43.172 --> 00:14:45.259
다음 단어는 모두 허용한다 해서

00:14:45.359 --> 00:14:50.656
네와 예, 앞에 있는 게 원칙이고
뒤에 있는 게 허용이에요.

00:14:50.756 --> 00:14:51.853
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

00:14:51.953 --> 00:14:56.860
복수 표준어 같은 경우는
구성이 이런 식이에요.

00:14:56.960 --> 00:15:00.283
원칙은 존재합니다.

00:15:03.864 --> 00:15:07.965
원칙, 그다음에 허용.

00:15:08.065 --> 00:15:12.297
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
있다고 알아두시고.

00:15:12.397 --> 00:15:14.532
그러면 볼까요?

00:15:14.632 --> 00:15:19.317
일단 대답할 때 네를 원칙으로
하지만 예도 허용한다.

00:15:19.417 --> 00:15:22.184
네는 맞고 예는
틀리다, 이게 아니고.

00:15:22.284 --> 00:15:26.158
애도 맞고 애도 맞아요.

00:15:26.258 --> 00:15:28.454
둘 다 맞는 것이고.

00:15:28.554 --> 00:15:37.443
그다음에 쇠, 소.
이거 무슨 이야기예요?

00:15:37.543 --> 00:15:40.839
쇠고기, 소고기 할 때.

00:15:40.939 --> 00:15:44.082
초등학교 때 이런 거
안 해 봤어요?

00:15:44.182 --> 00:15:47.364
쇠고기가 맞냐, 소고기가 맞냐
이런 논쟁 가끔씩 하잖아요.

00:15:47.464 --> 00:15:48.975
그런데 둘 다 맞아요.

00:15:49.075 --> 00:15:52.970
쇠를 원칙으로 하고 소를
허용한다는 이야기인데.

00:15:53.070 --> 00:15:55.777
원칙, 허용이라고 했지만
하여튼 둘 다 맞으니까

00:15:55.877 --> 00:15:59.464
크게 뭐가 더 맞다, 뭐가 더
적절하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.

00:15:59.564 --> 00:16:02.176
그래서 쇠, 소.

00:16:02.276 --> 00:16:04.598
그다음에 또 이런 거 있죠.

00:16:04.698 --> 00:16:10.445
괴다, 고이다.

00:16:10.545 --> 00:16:16.358
이런 것도 괴다가 원칙이고
고이다를 허용으로 하고 있고.

00:16:16.458 --> 00:16:23.072
그다음에 찌다, 쓰이다.

00:16:26.445 --> 00:16:30.710
찌다가 원칙이고 쓰이다가 허용이다.

00:16:30.810 --> 00:16:38.063
그다음에 죄다, 조이는 거.

00:16:38.163 --> 00:16:42.089
조이다.

00:16:44.307 --> 00:16:49.507
그다음에 별을 찌다 할 때 찌다.

00:16:49.607 --> 00:16:56.030

그다음에 쪼이다.

00:16:56.130 --> 00:17:00.229

둘 다 복수 표준어예요.

아시겠죠?

00:17:00.329 --> 00:17:05.299

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

00:17:05.399 --> 00:17:11.254

그다음에 19항에서 보면

어감의 차이를 나타낸 단어.

00:17:11.354 --> 00:17:13.439

방금 읽었지만 어감의

차이를 나타낸 단어

00:17:13.539 --> 00:17:15.505

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

널리 쓰이는 경우,

00:17:15.605 --> 00:17:18.087

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을 수 있다.

00:17:18.187 --> 00:17:22.364

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

00:17:24.664 --> 00:17:27.556

좀 헛갈리는 게 이런 것들이죠.

00:17:27.656 --> 00:17:33.020

눈을 선생님처럼 밝게 안

뜨고 거슴츠레한 사람이

00:17:33.120 --> 00:17:35.126

주변에 보면 있잖아요.

00:17:35.226 --> 00:17:39.925

그래서 거슴츠레하다,

이런 표현이 있어요.

00:17:42.085 --> 00:17:44.071

그런데 거슴츠레하다는 표현도 있고

00:17:44.171 --> 00:17:45.824

그다음에 게슴츠레도 있고.

00:17:45.924 --> 00:17:47.595

그런데 둘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.

00:17:47.695 --> 00:17:51.426

거슴츠레가 맞고 게슴츠레가

틀렸다는 개념이 아니고.

00:17:51.526 --> 00:17:58.803

게슴츠레하다도 표준어로

본다는 이야기예요.

00:17:58.903 --> 00:18:04.319

그다음에 애기들이 신는 고까신.

00:18:04.419 --> 00:18:09.613

그런데 꼬까신이라는
표현도 많이 쓰거든요.

00:18:09.713 --> 00:18:12.187

그런데 둘 다 맞는 거다.

00:18:12.287 --> 00:18:14.179

애도 맞고, 애도 맞고.

00:18:14.279 --> 00:18:17.046

애도 맞고, 애도 맞고.

00:18:17.146 --> 00:18:21.767

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예시들은
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.

00:18:21.867 --> 00:18:24.832

다음 내용 보겠습니다.

00:18:27.054 --> 00:18:29.254

제20항인데요.

00:18:29.354 --> 00:18:32.575

제20항을 보면 고어와
관련된 표준어 규정인데요.

00:18:32.675 --> 00:18:34.409

20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

00:18:34.509 --> 00:18:37.604

사어가 되어, 죽은 말이
돼서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

00:18:37.704 --> 00:18:42.039

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
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.

00:18:42.139 --> 00:18:44.522

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

00:18:44.622 --> 00:18:50.193

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

00:18:50.293 --> 00:18:58.411

예전에 보면 설겅다,
라는 표현이 있었어요.

00:18:58.511 --> 00:19:01.476

지금의 설거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.

00:19:01.576 --> 00:19:06.091

그래서 설겅다, 라는 표현이
있는데 이게 고어로 됐어요.

00:19:06.191 --> 00:19:08.436

쓰이지 않게 된
단어라고 보는 거예요.

00:19:08.536 --> 00:19:15.096

그래서 애를 고어로 처리하고
설거지하다, 이렇게 하는 거죠.

00:19:17.436 --> 00:19:22.720
그래서 우리가 설거지를 이렇게
쓰는 경우가 있어요.

00:19:22.820 --> 00:19:24.921
아니죠, 이거 아닙니다.

00:19:25.021 --> 00:19:27.609
이게 맞는 거죠.

00:19:27.709 --> 00:19:31.571
거지라고 되어 있어서 뭐가
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

00:19:31.671 --> 00:19:35.297
이게 맞는 거예요.

00:19:35.397 --> 00:19:39.030
이게 표준어가 된 거고요.

00:19:39.130 --> 00:19:45.824
그다음에 혹시 오얏이라는
말 들어봤어요?

00:19:45.924 --> 00:19:49.948
옛날 고전에 많이 나오는데,
이게 자두예요.

00:19:50.048 --> 00:19:53.960
지금 이거 안 쓰이죠,
이것도 고어로 처리하고요.

00:19:54.060 --> 00:19:59.060
자두가 살아남았습니다.

00:19:59.160 --> 00:20:07.975
그래서 설거지, 자두 이쪽이 표준어라는
거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.

00:20:08.075 --> 00:20:12.330
그다음 내용을 볼게요.

00:20:12.430 --> 00:20:17.817
제21항과 22항은 고유어와 한자어 가운데
어느 하나가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

00:20:17.917 --> 00:20:21.194
널리 쓰이는 그것만을
단수 표준어로 삼는다.

00:20:21.294 --> 00:20:23.542
그러니까 복수 표준어가
아니고 단수 표준어.

00:20:23.642 --> 00:20:24.951
널리 쓰이는 것만.

00:20:25.051 --> 00:20:27.314

역시 널리 쓰이나,
사용 빈도가 많냐.

00:20:27.414 --> 00:20:30.617
표준어에서는 이런 게 중요한 거죠.

00:20:30.717 --> 00:20:37.149
그래서 21항의 예를 들면,

00:20:37.249 --> 00:20:42.452
말약 대신에 가루약.

00:20:47.908 --> 00:20:50.533
이게 맞다.

00:20:50.633 --> 00:20:53.803
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.

00:20:53.903 --> 00:21:00.497
건빨래, 이 표현을 버리고

00:21:00.597 --> 00:21:04.693
마른빨래.

00:21:04.793 --> 00:21:07.678
이거를 표준어로 삼고.

00:21:07.778 --> 00:21:11.244
그다음에 둥근파, 이거
혹시 들어봤어요?

00:21:11.344 --> 00:21:13.156
안 들어봤을 텐데.

00:21:13.256 --> 00:21:16.086
둥근파를 버리고 양파.

00:21:16.186 --> 00:21:18.872
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양파 있죠?

00:21:18.972 --> 00:21:23.412
예전에는 둥근파라고 했어요,
파이기는 파인데 둥글게 생겼다고.

00:21:23.512 --> 00:21:26.207
그다음에 이거는 들어봤을 거예요.

00:21:26.307 --> 00:21:31.224
알타리무, 요즘
어른들이 많이 쓰는데.

00:21:31.324 --> 00:21:33.503
사실 이 표현은 저도 안 써요.

00:21:33.603 --> 00:21:36.714
알타리무 혹은 알무 이렇게 쓰는데

00:21:36.814 --> 00:21:42.460
지금은 총각무라고 써요.

00:21:44.697 --> 00:21:48.262

알타리 김치, 그렇게
안 하고 총각 김치.

00:21:48.362 --> 00:21:50.828
이게 표준어예요.

00:21:53.607 --> 00:21:55.351
위에 나와 있는 거는 뭐냐.

00:21:55.451 --> 00:22:02.204
이거는 21항에 해당되는 거.

00:22:02.304 --> 00:22:09.893
한마디로 한자어를 버리고
고유어를 선택한 경우.

00:22:21.145 --> 00:22:36.973
그리고 아래 2개는 고유어를
버리고 한자어를 선택한 경우.

00:22:39.480 --> 00:22:47.359
각각 21항, 22항에 해당되는
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.

00:22:47.459 --> 00:22:51.337
다음 내용 보겠습니다.

00:22:53.565 --> 00:23:00.111
제26항에 따르면 한 가지 의미를
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

00:23:00.211 --> 00:23:04.043
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
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.

00:23:04.143 --> 00:23:06.852
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.

00:23:06.952 --> 00:23:11.307
그래서 이 부분은 사례를 많이
알아줘야 되는 부분인데요.

00:23:11.407 --> 00:23:19.400
예를 들어서 가없다, 원래
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.

00:23:19.500 --> 00:23:28.503
그런데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.

00:23:28.603 --> 00:23:30.566
둘 다 맞습니다.

00:23:30.666 --> 00:23:35.240
가없다도 맞고 가엿다,
ㅂ으로 쓰는 것도 맞아요.

00:23:35.340 --> 00:23:36.659
이거 몰랐죠?

00:23:36.759 --> 00:23:39.764
이거 웬지 틀린 것 같잖아요?

그런데 이것도 맞아요.

00:23:39.864 --> 00:23:45.161

그다음에 또 곰곰이.

00:23:50.694 --> 00:23:54.991

곰곰이도 맞고 곰곰도 맞아요.

00:23:55.091 --> 00:23:58.336

이 자 안 써도 맞단 말이에요.

00:23:58.436 --> 00:24:00.665

이것도 표준어도 인정을 하고요.

00:24:00.765 --> 00:24:02.623

그다음에 이것도 헛갈려요.

00:24:02.723 --> 00:24:06.513

녕쿨, 호박 녕쿨 할 때.

00:24:06.613 --> 00:24:12.419

녕쿨도 맞고 덩굴도 맞아요.

00:24:14.320 --> 00:24:19.779

그다음에 판전 피지 마라.

00:24:19.879 --> 00:24:24.892

판청, 이런 것들.

00:24:24.992 --> 00:24:30.495

이런 것들이 26항에
해당되는 것들입니다.

00:24:30.595 --> 00:24:35.837

하나만 더 해볼까요?

00:24:35.937 --> 00:24:41.091

옥수수, 강냉이.

00:24:41.191 --> 00:24:46.834

지금 제시한 것들은 두 단어가
복수 표준어인 경우고.

00:24:46.934 --> 00:24:51.064

세 단어가 복수 표준어인
경우도 있어요.

00:24:51.164 --> 00:24:55.913

예를 들어 깃저고리.

00:24:56.013 --> 00:25:00.760

배내옷.

00:25:00.860 --> 00:25:08.437

그다음에 배넛저고리, 이런 표현들.

00:25:08.537 --> 00:25:11.830

다 표준어로 인정을 하는 케이스고.

00:25:11.930 --> 00:25:18.899

그다음에 아무튼.

00:25:18.999 --> 00:25:22.227
하여튼.

00:25:22.327 --> 00:25:27.381
어쨌든.

00:25:32.117 --> 00:25:34.400
여하튼.

00:25:34.500 --> 00:25:39.203
이런 것들도 다 표준어로
인정을 한 겁니다.

00:25:39.303 --> 00:25:42.890
어떻든.

00:25:42.990 --> 00:25:46.724
틀린 거는 하나도
없어요, 다 인정.

00:25:46.824 --> 00:25:51.996
3개 이상의 단어가 복수
표준어인 경우입니다.

00:25:52.096 --> 00:25:56.036
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

00:25:56.136 --> 00:26:01.824
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표준어
규정에 대한 핵심 사항들을

00:26:01.924 --> 00:26:03.588
공부해보았습니다.

00:26:03.688 --> 00:26:06.969
이제 마지막으로 문법 화룡점정
O, X 퀴즈를 풀고

00:26:07.069 --> 00:26:08.729
이번 시간을 마무리해야 되겠죠.

00:26:08.829 --> 00:26:11.749
문법 화룡점정 O, X 퀴즈!

00:26:11.849 --> 00:26:17.537
1번과 2번 봤죠? 정답 한 3초만에
나와야 되는데, 나왔나요?

00:26:17.637 --> 00:26:22.321
나왔으면 수강 후기에
올려주시기 바랍니다.

00:26:22.421 --> 00:26:26.301
그러면 우리 친구들의
정답을 기대하면서

00:26:26.401 --> 00:26:28.507
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

00:26:28.607 --> 00:26:32.957

다음 시간 한글 맞춤법으로
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26:33.057 --> 00:26:38.097
이제 층위가 비슷하지만 조금씩
난이도가 높아지기는 해요.

00:26:38.197 --> 00:26:41.439
또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사례와
함께 이해가 될 수 있도록

00:26:41.539 --> 00:26:43.689
딱딱 규범들을 알려줄 거니까요.

00:26:43.789 --> 00:26:46.801
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
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.

00:26:46.901 --> 00:26:49.806
그러면 마무리 멘트하고 이번
시간 마치도록 할게요.

00:26:49.906 --> 00:26:54.582
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.